

양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이집트부터 20세기까지-

유 현 정*(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최근 패션산업에서 니치(niche)마켓의 하나로 양말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양말은 복식의 품목 중 작은 것이나 인류의 역사에서 의복과 더불어 양말 품목도 함께 탄생되었으며, 의복의 변화만큼 양말의 조형성도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양말이나 스타킹의 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양말이나 스타킹의 조형성 변화에 따른 착용의의를 고찰하여, 양말 디자인을 위하여 양말의 조형성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집트 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복식사에 관한 문헌연구나 최근 패션과 양말, 스타킹 디자인 트렌드 북을 바탕으로 진행시키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패션 디자인 트렌드와 양말, 스타킹의 디자인 트렌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양말과 스타킹의 역할과 착용의의는 고대로 갈수록 기능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으나, 중세 말 부터는 착용상 여러 문제점이 수반되더라도 조형적인 면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은 인간의 미적 욕구를 더욱 반영하고 있으며, 복식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양말은 이미 청동기 시대(BC1000~BC2000)부터 존재했으며, 따뜻한 지역에서는 발, 다리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추운 지역에서는 보온을 위해 발생되어 다양한 분화를 이뤄 왔다. 중세 시대에는 호즈가 바지 역할을 대신하며, 분리되어있던 양쪽이 한 피스로 연결되었고, 16c중반에는 상하로 분리되어 윗 부분은 바지로, 아래부분은 양말과 스타킹으로 전개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형태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16c후반 기계니팅 발명으로 양말과 스타킹의 제작 방법은 비약적인 발달을 하게되어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방법이 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스타킹 패션을 주도하는 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고, 색과 소재 위주로 유행되었으며, 특히 20c에 저렴하면서 각선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일론스타킹 출시로 기계니팅과 함께 일대 혁명을 가져왔고, 80년대에는 다양한 실험적인 스타킹이 선보여 패션의 변화에 발맞춰 패션의 완성을 이끈다는 인식이 시작되었다.

3,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 분류는 소재측면에서 나뭇잎, 털, 가죽, 니트, 우븐, 인조섬유의 변화로 이루어 졌고, 소재의 특성에 따른 제작방법에는 소재 그대로 사용하는 것, 니트, 우븐, 기계니트로 분류되며, 형의 측면은 길이에서 발목, 무릎부근, 넙적다리, 허리까지 오는 것과 변형된 측면의 레오타드형, 부츠호즈, 팬티호즈 등이 있으며, 앞부리(발 부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발가락 부분이 갈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심(Seam)의 위치에 의한 것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장식성에 따라 가터, 문장, 카논, 자수, 보석, 프린트, 색상, 기계에 의한 텍스타일 등이 있으며, 기타 우리나라의 버선과 같이 특수한 형을 지닌것도 있다.

4, 1990년대 양말, 스타킹디자인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온 실험적인 트렌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1990년대는 패션 디자인트렌드와 발맞춰 색상, 소재, 길이, 텍스타일 등에도 다원화를 이루고 있다. 그 예로서 복고풍(바로크, 로맨틱), 아방가르드, 에콜로지풍, 민속풍(한국,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이 있다.